

“부어라 마셔라 옛말”...음주 문화 변화에 사라지는 서민 술집

최근 5년새 간이주점 광주 44% 급감 전남 39% ↓ ...골목상권 지형 급변 코로나 후 배달·회식 간소화 등 영향

지역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주던 '간이주점(소규모 술집)'이 최근 5년간 뚜렷하게 감소하면서 고사 위기에 빠졌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고착화된 주류 문화의 변화와 고물가에 따른 소비 위축이 맞물리면서 광주·전남 지역의 골목상권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17일 국제통계포털에 따르면 광주·전남에서 간이주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지난 1월 기준 총 243명(광주 90명·전남 153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의 경우 2021년 1월 162명이던 간이주점 사업자가 지난 1월 90명으로 감소해 44.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광주 구도심인 동구가 29명에서 11명으로 줄어 62.1% 감소하며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해 직격탄을 맞았다. 이어 광산구 54.3%(35명→16명), 남구 53.8%(26명→12명), 북구 30.8%(39명→27명), 서구 27.3%(33명→24명) 순이었다. 전남 지역 역시 시(市) 단위를 중심으로 폐업

도미노가 이어졌다. 2021년 1월 간이주점 사업자는 249명에서 지난 1월 153명으로 줄어들며 5년 사이 96명(38.6%)이 간판을 내렸다. 관광객 유입이 많은 여수(50%·54명→27명), 목포(48.6%·37명→19명), 순천(41.5%·41명→24명) 등 전남 주요 거점 도시에서도 40%가 넘는 감소세가 확인됐다. 외식·유흥업 전반이 코로나19 이후 점진적인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지역 소규모 술집은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구조적인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변화의 배경으로는 주류 소비 트렌드의

변화가 지목된다. 직장 회식 문화가 간소화되거나 사라지고, 과거 2차·3차까지 이어지던 음주 관행이 줄어들면서 간이주점 이용 빈도가 크게 감소했다. 또 '홀술(집에서 마시는 술)'과 '혼술(혼자 마시는 술)'이 일상화되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배달 앱을 통해 안주를 주문하고, 편의점에서 고품질의 주류를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소규모 술집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 여기에 인건비와 식자재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테이블 단가가 낮은 소규모 술집은 수익 구조를 더욱 맞추기 어려운 벼랑끝으로 내몰렸다. 경제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다. 장기화된 고물가는 서민들의 지갑을 닫게 만들었다. 외식 물가

가 급등하면서 '밖에서 마시는 술 한 잔'은 서민들에게도 부담스러운 지출이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이러한 감소세가 단기 현상이 아닌 구조적 변화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행우 전대후문 상인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배달문화와 온라인 소비가 급속히 확산되는 등 소비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변화하는 트렌드를 무시한 채 예전 방식만 고수해서는 생존이 어려운 만큼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끊임없이 학습하고 적응하기 위한 각각의 노력이 동반돼야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연태호 기자

광주경총,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지원사업 추진

고용망 연계 등 지역 정주 생태계 구축

광주경영자총협회는 지역 융·복합 가전 및 전·후방 산업 현장의 구조적 구인난과 신규 입사자의 조기 퇴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 융·복합 가전산업 고용 안정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우위니아 사태 등으로 촉발된 지역 주력기

업의 위기와 채용 질벽에 대응하기 위한 이번 사업은 만 15세부터 59세까지의 청년 및 중장년 구직자를 대상으로 공공 고용망 연계부터 채용, 현장 적응, 장기근속까지 전 주기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실질적인 임금 보전과 상생하는 조직 문화 정착을 위해 세 가지 맞춤형 세부 사업을 가동한다. 먼저 가전·뿌리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근

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든든 버팀 안착 지원을 추진한다. 참여 기업에 신규 채용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에게는 6개월 근속 달성 시 100만원을 일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현장의 핵심 기술 단절 막고자 현장 이음 상생 지원을 운영한다. 숙련된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를 일대일로 연결해 직무 교육을 돕고, 신규 입사자가 6개월 근속 시 담당 재직자에게 60만원의 성공 장려금을 지급해 현장 상생을 도모할 방침이다. /임채만 기자



5,640선 마감한 코스피 17일 서울 증시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 추가 등이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90.63포인트(1.63%) 상승한 5,640.48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수는 전장 대비 161.95포인트(2.92%) 오른 5,711.80으로 출발해 장중 5,717.13까지 올랐으나 추가 상승 탄력을 받지 못하고 오후폭이 둔화했다. /연합뉴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2026 백양사 고불매 축제 선·매·향

禪·梅·香

행사기간 2026년 3월 28일(토) | 행사시간 10:00 ~ 17:00 | 행사장소 백양산 백양사

프로그램 명상프로그램(선명상, 향기명상, 자연명상, 걷기명상 등), 선매향갤러리, 매화먹거리마켓, 백양 먹이체험 등

| 주최 |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 주관 |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 후원 | Jangseong 장성군

주주환원·기계장비·통신장비 관련주 관심

주간 증시 전망



김경준 유진투자증권 광주 WM센터 차장

지난 한 주간(3월11일~3월17일)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는 28%, 코스닥은 0.2%가량 상승했다. 해당 기간 개인이 양대 지수를 8조원 순매수했고 외국인도 7조5천억원, 기관이 5천억원가량 순매도했는데 확실시 미국, 일본 등 글로벌 증시보다 국내 증시가 견고한 모습이다. 지난주에 급등락을 반복했지만 개인들의 강한 매수세 속에 바닥을 확인했고 증권사로 개인 자금이 폭발적으로 유입되며 130조원까지 늘어났던 증시 예탁금은 120조원 수준을 유지하며 증시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증등 전장 장기화 우려 속 국제유가가 급등하며 급락세로 출발했다. 이후 증등 전장 뉴스 플로우, 국제유가 등락과 연동되며 변동성 장세를 보였는데, 그에 반해 코스닥은 액티브 ETF 출시 등 수급 유입 기대감이 하락 압력이 제한되는 모습이었다(KOSPI -1.75%, KOSDAQ -0.15%)

거기에 미국 사모 대출 시장 부실화 우려와 미국 고용지수 쇼크 등 악재들이 나왔고 외국인들이 전장 장기화 우려에 아시아 증시를 대규모 매도하며 달러 환율도 1,500원선에 도달했다. 전장 리스크가 완화돼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서는 시점이 코스피 6,000 포인트 재돌과 시점으로 보이므로 현재 글로벌 증시는 미국의 전장 출구 전략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전장 이후에도 고유가가 한동안은 지속되겠지만 불확실성 제거에 더 초점을 맞춰야겠고, 결국 전장의

종료가 유가와 인플레이, 금리의 연결고리를 선순환으로 바꿀 수 있기에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의 영향력이 크다. 트럼프도 장기화를 바라진 않을 것이기에 시장의 하락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고, 그 속에서 메모리 반도체는 오히려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며 가격 회복이 가장 빠르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1분기 영업이익이 합계 200조원을 넘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9일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기대감이 커 나스닥 조정에도 마이크론이 강세이고 삼성과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매도세도 모두 받아내고 있어 종전 후에도 두 대표주가 증시 랠리를 이끌어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편, 3차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삼성전자(16조4천억원), SK(5조2천억원) 등 대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다. 이번주 주요 기업들의 주주총회 시즌 본격화를 앞두고 대기업을 필두로 주요 상장기업들의 주주환원 확대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관련 회사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한화생명과 SK가 좋아 보인다. 최근 가장 강한 업종은 건설업을 필두로 한 기계/장비 업종이다. 국내 건설주들이 원전 경험 이 풍부해서 원전 관련주로 위고 건설 장비 등도 러우 전장 재건과 미국 인프라 투자의 수혜주로 실적 전망치를 높여가고 있기 때문인데 장기간 상승했던 원전 관련보다는 HD건설기계나 진성티이씨 등 중장비 기업들에 지속 관심을 가져볼만해 보인다. 또한 지난주 화요일 미국의 2위 통신기업 AT&T가 5년간 2천500억 달러 규모 미국 내 통신 장비 투자를 발표하며 장기간 놀려왔던 통신 장비주들에 강한 움직임이 있었는데 통신인프라는 결국 AI 데이터센터와 자율주행/로봇 모두에 기본이 되는 기반 시설로 그간 지속해서 늦춰지던 투자 사이클이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주파수 경매도 올해 6월에 계획돼있는 만큼 섹터 전반이 올해 내내 우상향할 가능성이 커 보이며 케이엠더블유, 에치에프알, 솔리드, 오이솔루션, RFHIC 모두 조정시 매수 대상으로 보고 있다.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재생에너지 100% 사용 약속

RE100 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만들어갑니다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